

Esbjerg에 있는 Aalborg University에서 6개월간 교환생활을 했습니다.

## 1.기숙사

일단 기숙사는 처음에 총 3가지가 제시가 되는데 저는 그 중에 Hedelundvej에 있는 집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4인이서 쉐어하우스를 이용했는데 각자 냉장고가 있고 각자 방을 쓰되 2명당 1개의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주방은 공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방이 복층이라서 1층은 책상이나 생활공간으로 활용했고 2층에 올라가면 옷장과 침대가 있었습니다. 덴마크는 쉐어 하우스 배정 시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룸메이트들이 남자, 여자 모두 있는 경우가 많고, 화장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한 달 생활비는 약 40만원 정도로 월세를 냈었고 보증금은 80만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시내에 모두 걸어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타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개인적으로 학교 옆에 있는 기숙사에 배정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전거는 중고로 직거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생활면에 관련된 정보는 페이스북에 있는 덴마크 세상살이, 덴마크 워홀 모임 등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 2.수업

수업의 경우 aau 앱을 활용하면 수업일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수업이 매주 무슨 요일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몇일에 한다 정확히 그 날짜가 제시됩니다. 학기 전체 수업 날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짜들을 피해서 수업이 없는 때에 여행을 가기에 좋습니다. 또한 저는 가을학기에 교환학생으로 갔는데 9월부터 11월 동안만 수업이 진행되고 12월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1월에는 시험만 있습니다. 과목은 총 4개이며 하나는 팀워크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나머지 3개는 강의를 듣는 수업이고, 학교에서 학기별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어 별도의 수강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 나한테 맞을 것 같은 학기를 학교에서 배정해주는데, 수업과목명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학기로 변경 가능합니다. 가을학기(1,3,5학기), 봄학기(2,4,6학기)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원하면 대학원 수업도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업은 2시간은 강의, 2시간은 self-study시간으로 진행되어 한 번에 총 4시간 정도가 진행됩니다. Self-study시간에는 교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경우 주제가 몇 가지 있고 그 중에서 원하는 주제를 골라 그 주제를 고른 사람들과 팀워크를 하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교수님과 만나 진행방향이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논문을 제출하고 마지막에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영어로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세션을 가지는 것으로 시험이 진행됩니다.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논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주로 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팀은 다른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되고, 시험을 볼 때 역시 같은 반 학생들이 모두 같이 발표를 듣지 않고 오로지 교수님과 외부에서 초청한 평가자들만 함께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기에 어찌 보면 한국에서는 해보기 힘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수업입니다.

### 3.학교생활/친목

학교에 금요일마다 펍이 운영되어 거기에 가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근처 기숙사에 살면 친구들과 훨씬 놀기에도 편하고 공용주방에서 만나서 서로 요리도 해주며 친해 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코펜하겐에서 생활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 드립니다. 한인 커뮤니티도 Esbjerg에는 없었습니다. 또한, 분교인 만큼 교환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저 포함 총 4명이었습니다.

### 4.Esbjerg 특성

Esbjerg의 경우 버스터미널 근처 시내에 주로 놀러갈 만한 카페, 펍 혹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친구들을 많이 사귀지 않으면 이 지역에서는 별로 놀거리가 없습니다. 교환학생 관련 행사도 따로 없습니다. 생활 면에서는 가자마자 cpr카드와 pink카드를 바로 지역 코문에서 발급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일단 덴마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보여주면 바로 통과가 되어 편리하고, 병원도 공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교통카드도 cpr카드가 있어야 만들 수 있어 보통 현금으로 버스비를 낼 때보다 반값 정도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대신 여행 다닐 때 코펜하겐 공항까지 가지 않아도 공항버스를 타고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곳에 빌룬 공항이라는 국제공항이 있어 편리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시간 1시간 전에만 도착해도 비행기를 타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공항이 번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 5.영어

영어의 경우 토플 80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발표도 영어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도 당연히 영어로 나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로 기본적인 대화만 할 줄 안다면 생활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 6.결론

종합적으로 교환학생이라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유럽의 많은 곳을 여행해보고 또 덴마크에서의 새로운 커리큘럼을 경험하면서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주 좋은 룸메이트를 운 좋게 만나 덴마크인들의 생각이나 덴마크의 문화들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공대 대외협력본부에 감사드립니다.